

무주군, 지역 의료 공백 해소

무주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진료 7년 만에 재개... 주 1회 외래 진료

무주군이 중단됐던 산부인과 진료를 재개하며 지역 의료 공백 해소에 나섰다.

무주군은 공중보건의사 미배치로 2019년 이후 중단됐던 무주군보건의료원(원장 홍찬표) 산부인과 진료를 7년 만에 재개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 재개로 지역 내에서 임신·출산 관련 의뢰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면서 주민들의 기대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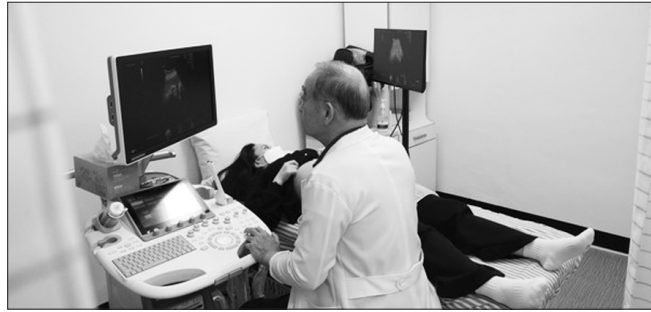
무주군은 진료 재개를 위해 지난 14일 우리들사랑요양병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산부인과 전문인인 조성남 원장이 주 1회 의료원을 방문해 외래 진료를 맡는다.

진료는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4시 30분까지 운영된다.

주요 진료 내용은 산전 기초검사와 초음파 검진 등 임신부 관리, 부인과 질환 진료 및 상담, 자궁경부암과 난소암 검진 등 예방 중심 의뢰서비스다.

첫 진료를 받은 주민은 "그동안 타



2019년 이후 중단됐던 무주군보건의료원 산부인과 진료가 7년 만에 재개했다.

지역으로 이동해야 했던 불편이 해소됐다"며 "가까운 곳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어 안심된다"고 말했다.

조성남 원장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산부인과 교수와 일본 규슈대 객원교수를 역임한 전문의로 우리들사랑요양병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무주군보건의료원은 이번 산부인과 진료 재개를 계기로 필수 의뢰서비스 강화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앞서 지난 3월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를 확보하며 진료 기반을 확충했다.

현재 의료원은 내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통합진료, 치과, 응급실 등 다양한 진료과를 운영하고 있다.

전문의 5명을 포함해 총 7명의 의사가 외래 진료를 담당하고 있으며, 다양한 의료 전문 인력과 최신 의료장비도 갖추고 있다. /무주=손흥기 기자



진안군은 용담호 수천휴게소를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번 사업은 연예인 이경규, 영탁, 딘딘, 이원일이 MC로 활약하는 SBS '우리동네 전성시대'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된다.

진안군, 체류형 관광 거점 조성

용담호 수천휴게소 중심 추진... SBS '우리동네 전성시대'와 협력

진안군은 용담호 수천휴게소를 체류형 관광의 거점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 추진에 본격 나섰다.

이번 사업은 용담호 인근 유희시설을 활용해 경관 친화형 캠퍼와 체류형 관광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 관광 활성화와 지방소멸 대응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된다.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2024년부터 관련 부서 이관과 지방소멸대응기금 활용 대상지 변경 등 행정 절차를 추진해 왔으며, 한국수자원공사 공모사업 선정 등을 통해 5억 원의 재원을 추가 확보했다.

총사업비는 19억 8,500만 원이 소요되며 사업 대상지는 용담호 수천리 542-24번지 일원이다.

수천휴게소는 기존 건축물을 활용해

반려동물 친화 요소를 반영한 복합 휴식공간으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연예인 이경규, 영탁, 딘딘, 이원일이 MC로 활약하는 SBS '우리동네 전성시대' 프로그램과 연계해 추진된다.

진안군은 방송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도출된 공간 활용 및 운영 방안을 실제 사업에 반영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이달 중 시설 개선 공사에 착수해 8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고, 9월 개장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더불어 수천휴게소 인근 부지에서 추진 중인 '용담호 에코가든' 조성사업과 연계해 체류형 관광 시너지를 높이고, 용담호 일원을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사찰 연계 외룡자연휴양림 '산림치유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싱잉볼명상·아로마테라피

장수군은 지난 18일 신광사 대웅전에서 외룡자연휴양림에서 운영하는 '장수 치유의숲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사찰과 산림치유를 연계한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전통 사찰에서 운영해 사찰만이 가진 고요한 환경과 숲이 지닌 자연 치유 효과를 결합해 참여자들에게 깊은 휴식과 내면의 안정감을 제공하고자 마련됐다.

특히 싱잉볼 명상과 아로마테라피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구성해 참가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싱잉볼 명상은 맑고 깊은 울림을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집중력을 높이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대웅전의 처분한 공간과 어우러져 참여자들의 몰입도를 한층 높였다.

이어 진행된 아로마테라피 프로그램은 자연에서 추출한 향을 활용해 심신 안정과 스트레스 완화를 돕는 치유 활

동으로 운영됐다.

특히 향후 템플스테이 등과 연계한 다양한 산림 치유 프로그램을 운영해 정적이고 성찰적인 사찰 분위기를 바탕으로 한 명상형 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정우 부군수는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신광사를 중심으로 장수만의 특색있는 산림치유 콘텐츠를 구축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자연·문화 자원을 연계한 산림치유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군민과 방문객 모두가 일상 속에서 치유와 휴식을 경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 중앙투자심사 통과

진안군은 농업 핵심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진안고원 스마트팜 단지 조성사업'이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6년 제1차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를 최종 통과하며 사업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재정 중앙투자심사는 지자체의 대규모 투자 사업에 앞서 사업의 필요

성과 타당성, 재정적 적정성을 엄격히 심사하는 행정 절차다. 이번 심사 통과로 진안군은 사업의 당위성을 확보하고 본격적인 예산 집행과 시설구축에 나설 수 있게 되었다.

군은 오는 2029년까지 총사업비 486억 원을 투입해 부지 11.9ha 규모의 스마트농업 거점 단지를 조성할 계획이

다. 단지 내에는 청년농업인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을 비롯하여 공동육묘장·위성 농산물산지유통센터(APC) 등 생산과 유통, 교육이 결합 된 종합 스마트농업 인프라가 구축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사업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진안에 청년 농업인을 유입시키고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미래형 영농환경을 구축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입교식 열려

무주군이 스마트농업 기반 청년농 육성에 나섰다.

무주군은 21일 농민의 집 소회의실에서 '제1기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 입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입교식에는 선발된 경영실습생 10명이 참석했으며, 군은 입교 계약 체결과 함께 교육 및 실습장 운영 전반에 대한 안내를 진행했다.

실습생들은 오는 2027년 11월까지 20개월 동안 고랭지 스마트팜 경영실습장에서 교육을 받는다.

교육은 스마트팜 운영 기술 습득부터 실제 경영 실습까지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프로그램은 여름철이 품종 선택과 재배 기초, 수경재배 기술, 온실 시설



및 자체 선택, 병난방 원리와 자동화 시스템, 병해충 관리, 농업경영 및 회계 이해 등 실전 중심 내용으로 구성됐다.

무주군은 이번 교육을 통해 청년 농업인의 스마트농업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 정착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무주=손흥기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농기센터, 신규 과원 맞춤형 현장컨설팅 운영

장수군농업기술센터(소장 이수란)는 사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장수사과 품질관리사 7명과 과수지도팀이 함께 참여하는 '신규 과원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11월까지 상시 운영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컨설팅은 신규 과원 조성 농가를 비롯해 품종 갱신 농가, 미래형 사과 다축과원 보조사업 대상자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총 45개소, 약 21ha 규모의 과원을 대상으로 추진된다.

컨설팅은 생육 단계별로 필요한 핵심 관리 기술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며, 재배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인 기술 지도를 통해 과원 조성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가별 재배 환경과 여건을 반영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초기 과원 조성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생산 기반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장수=고관호 기자

진안군,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 구축 박차

진안군은 최근 이상기후로 급증하는 병해충 피해와 육묘도 바이러스 감염 문제를 해결하고 고품질 과채류 생산 기반을 다지기 위해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 구축에 본격 나섰다.

이번 사업은 전북농업기술원 주관하는 '2026년 원예특작분야 경쟁력 향상 맞춤형 보급사업'에 선정돼 도비 1억 4천만 원을 포함해 총 2억 8천만 원을 투입해 관내 과채류 재배 농가 12개소에 '스마트 LED 자가육묘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지난 2024년 관내 육묘장에서 공급받은 모종에서 바이러스 피해로 큰 시련을 겪었던 토마토 농가들에게 외부 육묘장의 의존도를 낮추고 직접 건강함을 키울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하기 위해 시작했다.

특히 이번 시스템은 LED 광원을 활용해 기후와 관계없이 연중 계획생산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외부 병해충을 원천 차단하는 밀폐 시설까지 갖춰, 맞춤형 자가육묘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진안=우태만 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아동학대 신고전화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